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개혁신앙 안에서
선교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묵상

최용진 선교사



GOD-PLEASING BOOKS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개혁신앙 안에서
선교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묵상

추천사

저자 최용진 선교사의 오랜 고민과 연구, 묵상이 페이지마다, 글마다 진하게 배어 있는 책이다. 스물여섯 편의 묵상글이 다루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선교사의 정체성과 선교의 본질을 넘어, 신자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선교사의 가정생활과 같은 실천적 주제들부터 십자가, 칭의와 회개, 제한속죄와 같은 개혁신학의 핵심 주제들까지 선교 현장의 언어로 풀어내면서, 보이는 열매와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와 본질을 향해 독자를 이끈다.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갈망이 책 곳곳에 가득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읽어 버리기보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현장의 선교사들과 선교사역을 시작하려는 이들뿐 아니라,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손에 이 책이 들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

김형익 목사 (전 GP 선교회 한국 대표, 현 벤살롬교회 담임)

머리말

선교를 다시 묻는 자리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바깥을 먼저 바라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열려야 할 나라들, 세워져야 할 교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질문이 더 깊이 남습니다.

선교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먼저 선교사를 다루십니다. 선교지를 변화시키기 전에, 선교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한 가지 마음 아픈 사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선교사 파송 서약서에는 GMS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라는 분명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선교와 사역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지 않은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책은 개혁주의 신학 혹은 선교학을 말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학을 기초로, 선교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붙들게 되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쓴 글입니다. 선교사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다른 사역과 비교하며 위축됩니다. 때로는 사역이 잘될수록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선교를 준비하는 혹은 이제 갓 사역을 시작한 이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쓰인 글입니다.

이 글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를 함께 고민해 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중심을 다시 복음 위에 두고, 사역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두며, 삶의 뿌리를 다시 가정과 경건 위에 두는 문제를 조용히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누구이든,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해준 아내 김선희선교사와 불평 없이 아빠 엄마를 믿고 지금까지 동행 해준 사랑하는 세 딸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의 태국 선교 사역을 믿고 후원해주시며 늘 기도해주시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공동파송교회(벧살롬교회 김형익목사님, 갯플리징교회 전득안목사님 그리고 물댄동산교회 염경철목사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12일 태국 우돈타니 넝렛마을에서

최용진선교사

목차

* pdf 프로그램에서 목차메뉴를 활성화하여 원하는 목차로 이동하세요.

추천사 (김형익목사)

머리말 : 선교를 다시 묻는 자리에서

PART 1 선교사의 정체성 — 무엇을 붙드는 사람인가

- 1장 진리 전쟁 — 선교 현장의 가장 치열한 싸움
- 2장 선교사는 목회자다
- 3장 성공이 아니라 충성
- 4장 화합보다 증언 —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 5장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선교사
- 6장 선교사의 가장 깊은 원동력 —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PART 2 선교사의 내면 —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 7장 선교사의 가장 위험한 상태
- 8장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 9장 종의 기도, 응답하는 기도
- 10장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
- 11장 죄와 긍휼 사이에서 사는 삶
- 12장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에 맡기는 기도

PART 3 가정, 사역의 시작이자 기준

- 13장 선교사의 가정은 첫 번째 교회다
- 14장 목양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다
- 15장 가정예배는 선택적 경건이 아니라 공적 사역의 토대다
- 16장 선교사의 아내는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맡기신 양이다

PART 4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선교

- 17장 선교의 출발점 -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 18장 회개 없는 복음 전도
- 19장 참된 영적 전쟁 - 마음의 전장에서 복음으로 싸우는 선교사
- 20장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가?
- 21장 제한적 속죄를 믿는 선교사는 어떻게 전도하는가
- 22장 매력적인 예배라는 이름의 착각

PART 5 교회와 열매로 드러나는 선교

- 23장 교회의 사명과 다양한 섬김의 균형
- 24장 전도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해야 할 이웃
- 25장 교회의 영적 비만과 왜곡된 선교의 열매
- 26장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갈망하는 선교
- 브레이너드의 사역을 묵상하며

맺음말 : 선교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가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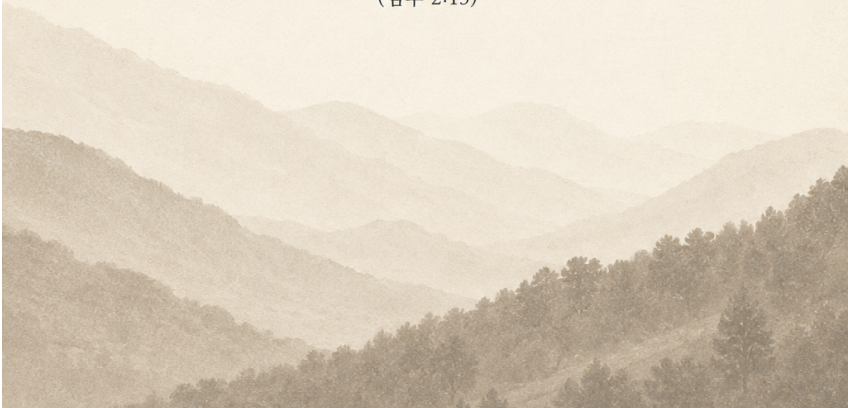
선교사의 정체성

무엇을 붙드는 사람인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딤후 2:15)



1장

진리 전쟁

— 선교 현장의 가장 치열한 싸움

“Apostate false teachers who remain in the church and undermine true faith are often extremely subtle, but they are never harmless. Heresy always breeds more evil.”

“교회 안에 남아 참된 믿음을 무너뜨리는 배교한 거짓 교사들은 대개 매우 교묘하지만, 결코 무해하지 않다. 이단은 언제나 더 많은 악을 낳는다.”

— John MacArthur, The Truth War



선교 현장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종교적 반대,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실제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선교사는 낯선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선교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메시지다. 전략은 바뀔 수 있고, 형식은 조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은 바뀔 수 없다.

선교가 흔들리는 이유는 대개 성경의 권위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약해지면, 복음은 선포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내용처럼 여겨진다. 그때부터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종교적 메시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지만 단지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상한 자를 품지만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떠나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복음을 친절하게 전할 수는 있어도, 그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진리의 타협은 대개 노골적인 부정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성경은 틀렸다”는 말보다 “이 시대에는 다르게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린다. 물론 지혜로운 언어와 문화적 배려는 필요하다. 그러나 배려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흐리기 시작하면, 선교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게 된다.

작은 조정처럼 보이는 일들이 쌓이면 메시지의 중심이 옮겨 간다. 죄의 심각성은 약해지고, 회개의 요청은 흐려지며, 심판의 현실은 말해지지 않는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기보다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따뜻한 상징으로만 설명된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멀어질 수 있다.

선교사는 이 지점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감출 수는 없다.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듣기 좋은 말만 전할 수 없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죄와 회개를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이시라면 십자가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장에는 언제나 여러 유혹이 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싶은 마

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후원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들이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말씀보다 앞서면 선교사는 증인이 아니라 관리자가 된다.

증인은 자신이 전해야 할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사건을 고쳐 말하지 않는다. 그의 충성은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고, 받은 말을 신실하게 전하는 데 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주께 받은 말씀을 자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선교사가 문화에 무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 언어를 배우고, 사고방식을 이해하며, 사람들의 아픔과 질문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배움은 복음을 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적 적응은 말씀을 섬겨야지, 말씀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먼저 그 말씀 아래 자신을 세운다. 선교사가 성경을 자신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면, 그는 이미 말씀의 권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은 선교사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선교사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는 기준이다.

복음이 왜곡될 때 선교는 이름만 남는다. 기독교적 분위기의 활동,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사업, 사람과 사회를 계몽하는 운동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가 중심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라고 말하기 어렵다. 선교의 생명은 규모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전해지는 말씀의 순전함에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자주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에 맞추어 메시지를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 진다는 이유로 성경의 불편한 진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선교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한다.

선교 현장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결국 진리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지면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도 선교의 핵심을 잃는다. 반대로 말씀을 붙들면 상황과 반응에 따라 메시지를 바꾸지 않게 된다. 선교사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기 전에 무엇을 붙드는 사람이다. 그의 첫 충성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한다. 진리를 잃지 않는 선교, 그것이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다.

2장

선교사는 목회자다

“A missionary is a messenger with a message from God, sent forth by divine authority for the definite purpose of evangelism, church-founding and church edification.”

“선교사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복음전도와 교회 설립, 그리고 교회를 말씀 안에서 세워 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선교사의 정체성도 달라진다. 선교를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로만 이해하면, 선교사는 전도자나 개척자로만 남게 된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 주는 선교는 그보다 깊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부를 뿐 아니라, 그들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세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돌보는 사람이다.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 그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예배를 배워야 하며,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삶을 배워야 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 결신은 있을 수 있어도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기 어렵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마련하거나 모임을 조직하는 일이 아니다. 교회는 말씀 아래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목양을 포함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고, 넘어지는 자를 다시 세우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선교사는 목회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사역의 성과

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이다. 선교지가 어디이든, 문화가 어떠하든, 선교사의 중심 사명은 사람을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오늘날 많은 선교 전략은 빠른 재생산과 조기 이양을 강조한다.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현지 교회가 자립하도록 돕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양 자체가 목표가 될 때 위험이 생긴다. 아직 말씀의 토대가 약한 공동체에 책임만 넘겨주는 것은 성경적 이양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스스로 서려면 먼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현지인을 “빠르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직분이나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목양은 속도보다 깊이를 요구한다. 성도는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곧바로 성숙해지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오해하고, 다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조급함과 싸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는 먼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 이해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깊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선교사가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리 위에 세울 수 없다. 목양하는 선교사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위해 말씀을 배우고,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한다.

선교사가 목회자라는 사실은 사역의 방식을 바꾼다. 그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 결신자, 참석자, 헌신자, 현지 지도자라는 이름 뒤에 있는 한 영혼을 본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돌본다. 성과를 위해 밀어붙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목양의 방식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목회자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가 기억해야 할 기준이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설 때까지 양을 먹이는 사람이다.

이양은 선교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따라오는 열매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첫 사명은 빨리 떠나는 것이 아니다. 떠난 뒤에도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다.

3장

성공이 아니라 충성

“The ‘talents’ ... represent not the natural gifts and aptitudes which everyone has, but the specific privileges and opportunitie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responsibilities they entail.”

“‘달란트’는 모든 사람이 가진 자연적 재능과 소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특권과 기회, 그리고 그것들이 수반하는 책임을 뜻한다.”

— R. T. France, “On Being Ready,” in *The Challenge of Jesus’ Parables*



선교 현장은 자주 열매를 묻는다. 몇 명이 복음을 들었는가. 몇 명이 예배에 나왔는가.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가. 교회는 얼마나 자랐는가. 이런 질문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매를 오직 눈에 보이는 사역 결과로만 이해하면, 선교사는 쉽게 성과의 압박에 눌린다.

성경도 열매를 말한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도 모르게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큰 사역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이다. 요한복음 15장의 문맥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이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한 성품의 열매다.

이 점을 놓치면 성경의 약속이 사역자의 짐이 된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바뀐다. 그러면 선교사는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결과를 증명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나 주님은 열매의 근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가지가 자기 힘으로 짜내는 결과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생명의 증거다.

물론 사역의 열매도 귀하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자라는 성도,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선교사가 조작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다.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단순히 사역 실적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 번째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은 사역의 열매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다. 주어진 “특권과 기회”(R. T. France)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었다. 그의 문제는 적은 결과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은 같은 칭찬을 들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남긴 양은 달랐지만 주인의 평가는 같았다. 주인이 보신 것은 서로를 비교한 성과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한 신실함이었다. 이 비유는 “너는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보다 “너는 주인을 신뢰하며 맡겨진 것에 충성했느냐”를 묻는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열매를 구해야 하지만, 사역의 열매 이전에 자기 삶의 열매를 구해야 한다. 그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서고, 사랑을 실천하며, 자기 안에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역의 결과를 구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인지 물어야 한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다. 충성은 맡겨진 것에 대한 진지한 순종이다. 선교사는 언어를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시 설명하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순종이어야 한다.

열매를 오해하면 선교사는 두 방향으로 무너진다. 결과가 보이면 교만해지고, 보이지 않으면 절망한다. 사람이 모이면 안심하고, 떠나면 자신의 수고를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열매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순종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사역의 열매가 더디게 보이는 시간은 선교사의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 맡겨진 순종을 감당하려 하는가.’ ‘나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눌려 있는가. 아니면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선교사는 사역의 열매가 보일 때에도 복음을 붙들고, 열매가 보이

지 않을 때에도 복음을 붙든다. 그는 자신이 열매의 근원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낙심 속에서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늘의 순종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가 성공이 아니라 충성으로 사는 선교사다.

4장

화합보다 증언

—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always offensive to the natural man.”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자연인에게 거슬린다.”

— Martyn Lloyd-Jones, “Not Ashamed of the Gospel”



선교사는 현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필요하다면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실제적인 필요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 선교사는 무례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 가까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한 유혹이 시작된다. 선교사가 복음의 증언보다 현지 사회와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협력적인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면 선교는 어느새 복음을 증언하는 일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내는 데 중심을 두게 된다.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눈에 잘 보인다. 교육 프로그램, 구제 활동, 지역 행사, 시설 보수, 협력 프로젝트는 설명하기 쉽고 보고하기도 좋다. 물론 이런 일들은 귀하다. 그러나 선교사는 늘 물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해서 미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낮은 자들을 긍휼

히 여기셨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악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요한복음 7:7) 사랑은 죄인을 향하지만, 진리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선교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죄와 회개를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전하면 반감을 갖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십자가의 대속을 분명히 말하면 인간의 선함을 믿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때 오는 불편함과 거절을 지혜의 부족함이나 전도 전략의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늘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말할 때 화려한 성취보다 약함과 고난을 말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복음의 영광이고, 질그릇은 그 복음을 맡은 연약한 사역자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사역자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관계가 불편해지고 반응이 차가워질 때, 복음을 더 무난한 종교적 언어로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다. 우리의 미숙함, 거친 태도, 지혜 부족, 불성실함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배워야 한다. 선교사는 자신이 겪는 모든 불편을 박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오는 거절과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진리를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화합은 귀하지만 증언보다 앞설 수 없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선교사의 부르심은 단지 좋은 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지만 그 목적은 회개케 하는 것이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32) 그분은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짓는 일을 멈추라 명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11)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세상의 악을 증언하셨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 고난도 없이 환영만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는 것이다.

선교사는 고난 없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외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약화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선교사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지일 수 있다. 화합보다 증언을 선택해야 할 때, 선교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한다. 그는 좋은 사람으로만 남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다.

5장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선교사

“Only a fraction of the present body of professing Christians are solidly appropriating the justifying work of Christ in their lives.”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직 일부만이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견고하게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

— Richard F. Lovelace, *Dynamics of Spiritual Life*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는 죄인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소식을 전한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선교사 자신일 때가 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마음은 자주 자격의 언어로 돌아간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후원자들은 내 사역을 의미 있게 여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선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으로 자신을 해석하게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본다. 설교가 잘된 날에는 안심하고, 반응이 차가운 날에는 움츠러든다. 언어가 잘 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말이 막히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누군가 칭찬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단지 사역이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곳에는 자기 의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서 있다는 사실보다, 사람들 앞에서 유능한 사역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작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역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도구가 되기 쉽다.

리차드 러브레스의 지적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견고히 붙들지 못한다. 이것은 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칭의 교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앞에서는 그 교리로 자신을 해석하지 못할 수 있다. 머리로는 ‘나는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는 더 잘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

나 역시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배워야 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교사가 된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마치 내가 어떤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능력이 나 열정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내가 더 나아서도 아니고, 더 준비되어서도 아니었다. 구원이 은혜였듯이 부르심도 은혜였다. 긴 시간 내 자신에 깊이 실망하고 몸부림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선교사를 교만에서 내려오게 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가르치고, 조금 더 앞서 간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복음은 말한다. “너 역시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선교사는 복음을 가진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은혜로 사역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비교가 마음을 지배한다. 다른 선교사는 언어를 더 빨리 배우는 것 같고, 누군가는 현지인들과 더 쉽게 가까워지는 것 같다. 누군가는 보고할 이야기가 많고, 누군가는 늘 확신 있어 보인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고, 부르심보다 부족함을 크게 보게 만든다.

선교편지를 쓸 때도 마음은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 나누기보다 더 의미 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작은 일을 크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 어려움은 줄이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 물론 후원자에게 사역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현지인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한다. 가르쳤던 사람이 쉽게 떠날 때 판단이 앞선다.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사람을 볼 때 사랑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온다. 그 순간 선교사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나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나도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낙심과 교만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자

란다.

교만은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말하고, 낙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둘 다 기준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 둘 다 자신을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로 판단한다. 복음은 우리를 그 흔들림에서 건져 낸다. 우리의 의와 신분은 사역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선교사는 사역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실패를 정직하게 볼 수 있다. 실패가 더 이상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잘한 일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 그것이 자기 의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회개하게 한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실패를 감추려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전에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의 사역은 자기 의를 세우는 무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

6장

선교사의 가장 깊은 원동력 —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Missions is not the ultimate goal of the church. Worship is.

Missions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적이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선교사를 오래 붙드는 힘은 무엇인가. 낯선 땅에서 지치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도 복음을 붙들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선교는 한순간의 열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식고, 기대는 흔들리며, 사람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에게는 더 깊은 원동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향한 공허는 귀하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 길을 잃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선교사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책임감도 필요하다. 선교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그러나 공허와 책임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때 공허는 지칠 수 있고, 책임감은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의무가 될 수 있다.

선교사의 가장 깊은 원동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만족과 기쁨이 될 때, 선교사는 무너지지 않는 더 깊은 힘을 얻게 된다.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선교 자체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적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으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더 많은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부르는 일이다.

예배는 단지 공예배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삶 전체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배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된 예배로 부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선교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용히 말씀을 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이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선교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이 시간은 더 쉽게 밀려난다. 만나야 할 사람, 준비해야 할 모임, 해결해야 할 문제, 보고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 그러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선교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 간다. 겉으로는 여전히 복음을 말하고 사람

을 섬기지만, 내면에서는 기쁨보다 부담이 커지고 감사보다 의무가 앞서게 된다.

개인의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은 다른 연료를 찾는다. 사람들의 인정, 사역의 확장, 눈에 보이는 결과, 자기 의로움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비판을 들으면 쉽게 무너진다. 결과가 보이면 안심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소명까지 의심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선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사역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주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역하는가. 나는 쓰임받는 기쁨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일상이 평범하고 조용한 날에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영혼의 힘이 되는가.

이 질문은 선교사의 진짜 원동력을 드러낸다. 선교사의 가장 큰 위험은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더 무서운 위험은 사역을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의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계속해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앞

에 있어야 한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한다.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사람을 향한 사랑도 더 순전해진다. 선교사는 사람을 사역의 성과로 보지 않는다. 결신자, 참석자, 훈련생, 현지 지도자라는 이름 뒤에 있는 한 영혼을 본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조금하게 이용하지 않고 오래 참고 섬길 수 있다.

사역의 방향도 분명해진다. 교육, 구제, 돌봄, 문화 이해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모든 섬김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믿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향해야 한다. 선교는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선교는 결국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다.

결국 선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가고, 하나님 때문에 머물며, 하나님 때문에 견딘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사역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역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다. 결과를 바라지만 결과에 자신을 묶지 않는다. 그의 깊은 원동력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데 있다.

선교사의 가장 깊은 원동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 기쁨

이 있을 때 선교는 무거운 의무를 넘어 예배가 된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서 시작된 선교는 다시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일로 나아간다.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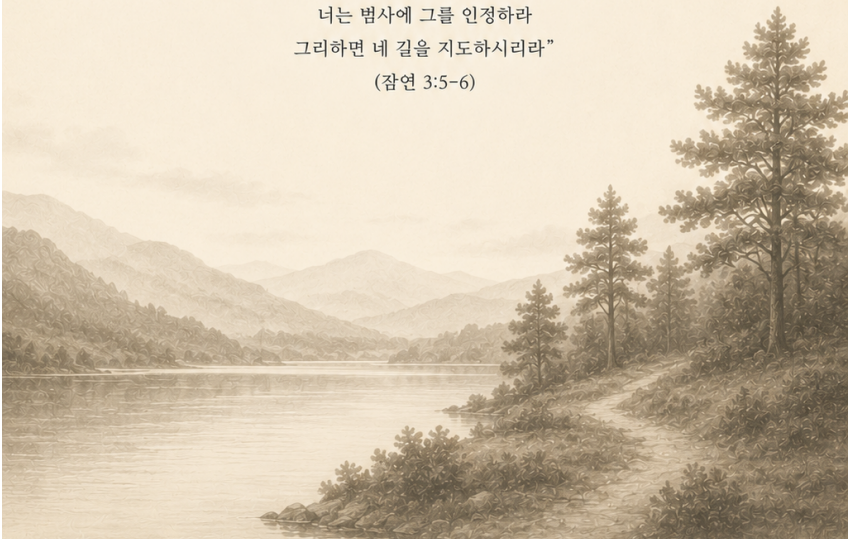


선교사의 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7장

선교사의 가장 위험한 상태

“You and I are each in possession of only one heart, so the condition of our heart is a huge issue in our ministry.”

“당신과 나에게는 각각 하나의 마음만 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사역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 Paul David Tripp, *Dangerous Calling*



선교사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사역이 멈춘 상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겉으로는 사역이 계속되고, 일정은 채워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할 일들이 쌓여 가는데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 손은 바쁘고 입술은 복음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가는 상태가 선교사에게 가장 위험하다.

선교 현장에서는 자신을 속이기 쉽다. 사역이 계속되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괜찮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괜찮고,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역의 움직임이 반드시 마음의 건강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주님과 떨어진 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종교적 활동을 했으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선교사도 이 말씀 앞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 그때 사역의 책임감, 사람들의 평가, 자기 확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선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폴 트립은 사역자에게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사역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에게서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마음 상태는 사역과 분리된 개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역의 방향과 태도와 열매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선교사는 위험한 이중성을 허용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으면서도 공적으로는 은혜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사랑이 식어 있으면서도 사역 현장에서는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긴다. 마음에는 교만과 분노와 두려움이 자라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사역만 유지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마음을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선교사의 위험은 언제나 큰 죄의 형태로만 찾아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다. 말씀을 읽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 문제 해결만 구한다. 예배하지만 주님

을 기뻐하기보다 사역의 피로만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일을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선교사는 사역에 능숙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주 자신의 마음을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사역을 이유로 주님과 교제를 미루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가.’ ‘나는 밖에서 말하는 은혜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살아 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선교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질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성과만을 요구하시는 “악덕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이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선교사의 생명은 사역의 양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교제에서 나온다.

선교사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상태다.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쌓아 올린 사역은 결국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순종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두려운 경고가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8장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 요한계시록 2:4-5



많은 선교사가 젊은 날,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복음이 생명처럼 다가왔고, 눈물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뜨거운 헌신이 있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선교지로 나왔고, 기도했고, 전했고, 수고했다. 그 시절은 분명 은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올라온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젊은 날의 열정에 비하면 지금의 사역은 작아 보이고, 기적은 드물고, 기도의 응답은 더디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처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너무 밋밋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곤 한다. 그리고 그 압박은 다시 우리를 더 깊은 낙심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 “처음 사랑”을 감정의 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때의 순수했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며, 그 뜨거움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그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 옛날의 방식과 행위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의 회복은 단순히 옛날의 열정적 감격을 재현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님은 “어디서 떨

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처음 사랑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자리였다. 그러나 사역자로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중요한 것들이 많아졌다. 사역의 결과, 사람들의 인정, 눈에 보이는 열매, 나의 이름과 역할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절망을 좌우하기 시작한다.

사실 우리의 처음 사랑은 순수했지만 미성숙했고, 열정적이었지만 깊지는 않았다. 진실했지만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단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사랑을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로,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으로,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처음 사랑의 회복은 감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젊은 날에는 나에게 주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

다면, 이제는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서 그 사랑을 배운다. 예전에는 전도와 봉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선교 현장의 평범한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난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미미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얻기 위해 고난도 견디는 것 – 이것이 처음 사랑의 성숙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의 회복은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역의 성공보다 주님 자신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칭찬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더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회복되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한 분을 향한 사랑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 그분을 사랑하기에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성숙한 성도의 길. 이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했던 처음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빚어 가신다.

9장

종의 기도, 응답하는 기도

“Give what you command, and command what you will.”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 Augustine of Hippo, Confessions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요구하는 기도로 채워진다. 필요를 말하고, 문제를 나열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의 깊이가 거기서 멈출 때, 우리는 어느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 바로 종의 자세이다.

종의 기도는 단순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 종의 기도에는 반드시 주인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하는 분인 것처럼 변한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주세요.” 그러나 정작 기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많다.

이러한 태도가 심각해지면,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듯한 불평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구하면서도,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앞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요구하신 순종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의 관계 안에 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오해하면, 기도는 어느 순간 투정이 되고, 염려의 나열이 되며, 심지어 떼쓰는 기도로 끝나기도 한다. 아버지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귀하다. 그러나 그 토로가 순종 없는 요구로만 반복될 때, 기도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주기도문은 이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용서해야 할 책임 앞에 서게 된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앞에 서게 된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를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결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종 된 우리의 무능력함을 주님께 아뢰다. “주님,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아시오니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없으니,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종의 기도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피하지 않지만, 동시에 자기 힘으로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는다.

결단의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함께 간다. 결단만 있는 기도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무너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러나 은혜를 구한다는 말로 순종을 미루는 기도는 삶을 바꾸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에 머문다. 참된 기도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함께 품는다.

어거스틴의 기도는 이 균형을 잘 보여 준다.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종의 기도다. 주님의 뜻을 피하지 않고, 그 뜻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응답하는 기도이다. 우리의 관심은 단지 “응답받는 기도”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10장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



“We do not pray in order to instruct God, but in order to rouse ourselves to seek Him.”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깨어나기 위함이다.”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20.3



선교 현장에서 기도는 종종 책임 회피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 실제로는 결정을 미루거나, 갈등을 피하거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표현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다. 기도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행위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도를 계속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일 때가 많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는지가 기도의 자리에서 선명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는 등불이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선교사의 기도에는 늘 이중성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역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미 원하는 결론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 응답이라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거나 내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

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렬되는 시간이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신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요청의 목록은 짧아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중요하게 구해야 하는지는 더 명확해진다.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리에서, 유일한 공급원이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응답을 받고자 하는 열정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 갈망이 기도를 지속하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은혜의 과정이다. 내 뜻이 꺾이고, 두려움이 드러나며, 욕심이 폭로되고, 조급함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나의 참된 평안이다.

그래서 기도는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훈련이다. 선교사는 기도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을 키워 간다. 기도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일하시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11장

죄와 긍휼 사이에서 사는 삶

“I daily need God’s work of mercy in order to do his work of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일을 감당하기위해, 나는 매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필요하다.”

— Paul David Tripp, New Morning Mercies



우리 안에 죄가 고개를 들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고, 하나님의 공효이 새롭지 않은 날도 없다. 이 사실은 신앙의 현실을 미화 없이 드러낸다.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서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 준다. 신앙은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 삶이 아니라, 죄와 공효이라는 두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선교사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다. 우리는 종종 선교사를 죄의 문제를 다 극복한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성숙은 죄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의존이다. 내 안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효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하다.

우리는 매일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음을 경험한다. 피곤함 속에서 튀어나오는 짜증, 사역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비교와 시기, 은근한 자기 의,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좋아하는 마음. 이것은 특별히 타락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 죄가 남아 있는 성도의 현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놀라워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다. 대신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되, 하나님의 공효로 나아

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 균형을 자주 놓친다는 데 있다. 어떤 날은 죄만 보인다. 그러면 스스로를 정죄하며 깊은 낙심에 빠진다. 반대로 어떤 날은 긍휼만 말한다. 그러면 죄는 가볍게 여겨지고, 회개 없는 위로와 자기 합리화가 자리 잡는다.

그러나 죄를 직면하지 않는 긍휼은 값싼 은혜가 되고, 긍휼을 붙들지 않는 죄 인식은 절망이 된다. 선교사의 삶은 이 두 진리 위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두 진리는 서로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 실체가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알수록,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된다. 선교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기 전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자신 안에 남아 있는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매일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설 때, 그는 비로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기도

주님, 제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저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사람을 섬기면서도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하루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죄보다 주님의 긍휼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제 죄 때문에 낙심에 빠지지도 않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잡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제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기 전에 긍휼을 입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통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에 맡기는 기도



“The ministry of the Spirit is to bring us under the lordship of Christ.”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이끄는 것이다.”

— Sinclair B. Ferguson, The Holy Spirit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기도제목들을 나열하고,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표들을 세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기도의 응답은 과장되거나, 막연하게 “은혜였다”는 표현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기도는 형식적이어지고 구체적인 기도제목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종교적 언어로 표현한 구호처럼 전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결과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는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혜롭게 그분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지점에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드러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님을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는 능력이나 수단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이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는 먼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기도이다. 이루어 달라는 요청에서 시작했던 기도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뜻을 따르게 해 달라는 고백으로 바뀐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던 그 길마저도 내려놓게 하신다.

이 사실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선교사는 오래 관계를 맺고 복음을 나눈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기도도 간절해진다. 그가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구한다. 이런 기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간절함이 곧 원하는 바를 확정하는 능력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선교사가 결정할 수 없다. 함께 사역하게 될지, 교회 안에 머물게 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확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조차 조급함과 집착으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반응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알팍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때로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세대에게 맡기신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이끄신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께 맡기는 기도는 선교사를 신실하게 만든다.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고, 실패에 무너지지 않게 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몫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몫을 구분하게 한다. 선교사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통로로 사용되는 특권을 받은 종이다.

PART 3



가정, 사역의 시작이자 기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13장

선교사의 가정은 첫 번째 교회다



“These biblical imperatives reveal God’s priority that a pastor should first shepherd and care for his family before his flock.”

“이 성경적 명령들은 목회자가 양 떼를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을 목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 Brian Croft, *The Pastor’s Family*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파송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선교사가 먼저 어디에서 교회를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하나님은 선교사에게 무작위로 영혼을 맡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배우자와 자녀를 맡기신다. 그러므로 가정은 선교사의 첫 번째 사역지이며, 아내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첫 번째 양떼이다.

이 사실을 놓칠 때,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 주님께서 먼저 맡기신 가정을 희생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교회의 필요는 크게 보인다. 성도들의 요청은 긴급하게 들리고, 사역 일정은 눈앞에 놓이며, 심방과 회의와 모임은 계속해서 선교사의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은 대개 조용히 기다린다. 아내와 자녀는 선교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간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쉽게 뒤로 밀려난다.

사역에 열심을 내다가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역자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본다. 모임과 심방, 사역 일정은 늘어나지만, 가정에서의 대화는 줄어든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집 안의 사람들에게는 무심해진다. 그러나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세워지는 또 다른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

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먼 공동체가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는가.

나 역시 이 사실을 아프게 배워야 했다. 사역 현장의 아이들에게는 시간과 돈을 쓰고, 함께 놀아 주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때로는 아픈 아이를 집에 두고 성도를 심방하러 나가야 할 때도 있었다. 그때는 사역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교회에서 간식이 부족할 때, 나는 내 아이에게 양보를 구하고 그 간식을 다른 아이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내게는 작은 배려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나는 아빠에게 우선이 아니구나”라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선교지의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먼저 맡기신 내 자녀의 마음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자녀에게 양보를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 아니다. 사역 중에는 가족이 함께 희생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반복될 때, 그리고 그 희생이 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만 요구될 때, 아이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가정도 함께 섬긴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늘 뒤로 밀린다”는 마음이 자랄 수 있다.

선교사의 자녀는 사역의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먼저 맡기신 양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삶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한 영혼”에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지 않을 때가 많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운다. 선교사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신앙 교육은 가정 안에서의 일상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자녀는 복음을 본다. 아버지가 자녀의 말을 듣고, 약속을 지키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 때, 자녀는 은혜가 말뿐인 교리가 아님을 배운다. 반대로 가정 안에서 냉소와 무관심이 반복될 때, 자녀에게 복음은 위선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일은 사역의 짐이나 또 다른 별개의 사역이 아니다. 가정과 지역교회는 함께 간다. 아내의 영적 상태와 자녀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사역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일정은 미루어야 하고, 어떤 요청은 거절해야 하며, 어떤 순간에는 성도보다 가족 곁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다. 그것은 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그렇다고 가정을 우상으로 만들어 사역의 어려움과 희생을 피하자는 말은 아니다. 사역은 어렵고, 희생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교사의 가

죽도 그 부르심 안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적 희생은 가까운 가족을 반복적으로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사역을 약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사역을 성경적 질서 안에 두는 길이다.

가정은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역의 첫 자리이다. 가정은 지역 교회를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사의 가정은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가장 먼저 실천되는 작은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선교사의 가정을 통해 먼저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가장 가까운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먼 곳의 양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선교사의 가정은 그의 첫 번째 교회다.

14장

목양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다



“God has designed your family—not the youth group, not the children’s ministry, not the Christian school, but your family—as the principal discipling agent in your children’s lives. The most important job you have as a parent is to train and disciple your children.”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서 주된 제자훈련의 통로로 청소년 부나 어린이 사역이나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당신의 가정을 설계하셨다. 부모로서 당신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훈련하고 제자 삼는 것이다.”

— Voddie Baucham, Family Driven Faith



선교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성도를 권면하고, 새신자를 양육한다. 사역이 깊어질수록 선교사는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믿음의 성장을 돕고, 영혼을 인내하며 섬기는 법을 배워 간다. 그러나 그 목양이 사역 현장에서 익혀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

목양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다. 목양은 강단 위에서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고, 심방 자리에서만 발휘되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목양은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듣고, 기다리고, 설명하고, 용서하고, 다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의 목양은 가장 가까운 자리인 가정에서 먼저 드러난다.

교회에서는 인내심 있는 목회자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도에게는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해 주면서, 자녀에게는 “왜 이것도 모르느냐”고 다구칠 수 있다. 새신자의 연약함은 이해하면서, 아내와 자녀의 연약함은 성가신 일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반응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역자인지를 보여 준다.

선교사의 자녀는 단지 선교사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의 사역을 가까이서 보지만, 그

것이 곧 복음을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듣고, 사역 때문에 무엇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경험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교회 안에 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삶이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성경공부 교재를 준비하고, 제자훈련 일정을 만들고, 심방 계획을 세우며, 사역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을 때가 많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자녀를 실제로 목양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막연한 감정에 머물지 않고, 반복되는 시간과 관심과 대화의 형태를 가진다.

자녀를 목양한다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한 아이와 따로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읽고, 마음을 묻고, 함께 기도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며, 믿음의 질문도 다르다. 어떤 아이는 말이 많고, 어떤 아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어떤 아이는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는 부모의 삶을 더 예민하게 본다. 그러므로 자녀를 목양하려면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아이를 한 영혼으로 보아야 한다.

선교사는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자녀의 죄와 두려움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단지 도덕적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다. 자녀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말해 줄 수 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복음 안에 있는 용서와 회복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복음을 너무 얇게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아이의 나이에 맞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쉬운 말로 설명한다는 것과 복음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은 다르다. 죄, 은혜, 십자가, 대속, 칭의, 회개, 믿음, 성화와 같은 진리는 자녀에게도 필요하다. 선교사가 낯선 언어의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자기 자녀에게도 그 세대에 맞는 언어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선교사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자주 실패한다. 부부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자녀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날카롭게 말할 때도 있으며, 사역의 무게 때문에 가정에서 마음을 닫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전혀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사과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부모를 통해 복음을 배운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가정에서 목양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도 중요하다. 자녀의 하루를 묻는 질문, 아이의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순간, 약속을 지키려는 작은 노력, 실패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정직함. 이런 것들이 쌓여 자녀는 복음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게 된다.

목양은 멀리 있는 사람을 돌보는 기술이기 전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다. 선교사는 교회에서만 목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 가정에서의 언어와 태도와 선택이 그의 목양을 형성한다. 하나님은 선교사의 가정을 통해 그의 목양을 빚으신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배운 인내와 경청과 기도와 사랑은 결국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목양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다.

15장

가정예배는 선택적 경건이 아니라 공적 사역의 토대다



“In many churches and homes family worship is an optional thing, or at most a superficial exercise such as a brief table grace before meals.”

“많은 교회와 가정에서 가정예배는 선택적인 일로 여겨지거나, 기
껏해야 식사 전 짧은 감사 기도와 같은 피상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 Joel R. Beeke, Family Worship



많은 사역자는 공적 예배에는 철저하지만, 가정예배에는 관대하다. 주일 설교는 준비하지만 식탁의 말씀은 준비하지 않고, 강단의 예배는 놓치지 않으면서 가정의 예배는 상황에 따라 쉽게 미룬다. 바쁘다는 이유,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정예배는 늘 선택 가능한 일로 밀려난다.

그러나 가정예배는 사역자의 일정에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다. 선교사의 가정은 사역의 압박 속에서 쉽게 흩어진다. 아버지는 사역 일정에 묶이고, 어머니는 가정과 사역의 부담 사이에서 지치며, 자녀들은 부모의 분주함 속에서 조용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이런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가정예배가 언제나 엄격한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몰랐다. 첫 딸이 어렸을 때, 나는 가정예배의 형식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 했다.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냈던 기억도 있다. 그때는 그것이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다.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아이에게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기뻐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억지로 견뎌야 하는 무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예배의 힘은 형식의 완성도에 있지 않고 반복되는 방향성에 있다. 어린 자녀는 산만할 수 있고, 사춘기 자녀는 무심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부모 자신도 피곤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정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와 성장에 따라 가정예배의 방법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할 때는 짧은 성경 이야기, 그림, 찬양 율동, 간단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조금 자란 자녀와는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질문을 나눌 수 있다. 청소년이 된 자녀와는 책을 읽고 나누거나, 교리문답을 함께 읽고 토론할 수도 있다. 때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해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정 안에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다.

가정예배가 늘 감동적이지만은 않다. 때로는 형식적인 것 같고, 때로는 산만하며, 때로는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여러 일과 상황 때문에 가정예배의 패턴이 멈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멈췄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오래 쉬었다면 자녀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면 좋겠다”고 말하고,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한 주에 한 번부터 약속할 수 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읽고,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조금씩 습관이 생기면 횟수를 늘려 갈 수도 있다.

이미 다 성장한 자녀라면 방식은 더 달라질 수 있다. 함께 모여 긴 예배 형식을 갖추기 어렵다면, 정해진 시간에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녀의 고민을 듣고, 부모의 기도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정예배의 중요한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일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같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일은 늘 극적인 순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같은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같은 은혜를 또 붙드는 시간이 쌓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고 반복적인 자리에서 자녀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심으신다. 이는 선교지의 현지인이 믿음으로 나오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가정예배는 선택적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이며, 자녀가 복음을 일상 속에서 배우는 통로이고, 사역자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는 시간이다. 선교사가

먼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신다. 가정예배는 공적 사역의 토대다.

16장

선교사의 아내는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맡기신 양이다



“A husband should be mindful of his wife’s needs, struggles,
and feelings.”

“남편은 아내의 필요와 어려움과 감정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 Brian Croft, *The Pastor’s Family*



선교사와 목회자는 종종 아내를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다. 사역이 바쁘니 이해해 주어야 하고, 소명이 크니 밀어 주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녀와 아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를 그런 위치에 두지 않는다. 성경은 아내를 사역의 희생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기신 사람으로 귀히 여기라고 한다.

아내 선교사는 남편 선교사의 귀한 동역자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뻐한다. 그러나 아내는 사역의 동역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양이다. 아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 돕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이다.

아내는 남편 선교사의 인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증인이다. 강단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집에서는 숨길 수 없다. 성도들 앞에서는 온유한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내 앞에서는 쉽게 짜증 내고 무심해질 수 있다. 교회 안의 여성 성도에게는 친절하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무례하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신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핑계 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살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말한다. 아내는 남편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은 자매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아내를 사역의 기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잘 견디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로 아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먼저 사랑받고 보호받고 목양받아야 할 사람이다.

특히 선교사의 아내는 보이지 않는 짐을 많이 진다. 낯선 문화 속에서 적응해야 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며, 남편의 사역으로 인해 반복되는 긴장과 외로움을 감당해야 한다. 때로는 교회의 기대를 받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버텨야 한다. 남편은 교회의 필요를 크게 보면서도 아내의 필요는 잘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아내의 지친 얼굴, 말수가 줄어든 모습, 예민해진 감정, 반복되는 침묵은 남편이 세심히 살펴야 할 목양의 신호일 수 있다.

교회 개척 초기에도 이 사실을 배워야 할 때가 많았다. 사역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이어질수록, 아내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가라앉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한적한 곳을 드라이브하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과 직접 관련 없는 시간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사역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가장 가까

운 사랑의 대상을 다시 바라보고 서로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아내의 세밀한 감정을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서로 기질이 달라 오해할 때도 있고,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하려는 노력과 태도였다. 서로의 마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다시 맞추어 가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선택해야 하는 순종이다.

우리 목회자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어떤 사역자는 “나는 아내와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로 가정을 뒷전으로 두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맡기신 사람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가장 가까운 명령이다.

물론 선교사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언제나 쉽다는 뜻은 아니다. 아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다. 서로의 연약함은 반복해서 드러나고, 오해와 상처도 생긴다. 그러나 복음은 부부가 서로의 죄 앞에

서 정죄와 회피로 끝나지 않게 한다. 남편은 아내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아내의 연약함을 볼 때, 자신의 연약함도 함께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사의 아내는 단지 사역을 위한 보조자나 수단이 아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사람이다. 선교사는 먼 곳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의 필요를 살피고, 어려움을 들어 주고,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하는 시간을 아끼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이가 아내 선교사이거나 사역자의 아내라면, 같은 원리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역으로 인해 남편이 지쳐 있을 때 그의 연약함만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더 많은 짐이 주어진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원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남편의 사역을 함께 기도하며 세우기보다 비판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리더십을 기도로 세워 주는 일은 주님 앞에서 귀한 순종이다.)

PART 4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선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17장

선교의 출발점

—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Answers can be given solely on the basis of Scripture. For the work of missions is the work of God.”

“대답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이는 선교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선교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선교가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는가를 묻는 신학적 질문이다. 인간 안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립적 지점이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불의로 억누르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교의 방향 전체를 결정한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인간 안에 어떤 종교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모든 문화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흔적이 있고, 모든 종교 안에는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듯하다. 물론 일반계시는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양심과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진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이 그 진리를 불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억누른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 선교 이해는 인간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인간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존재이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반역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출발점은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종교적 가능성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선교학자 J. H. 바빙크가 중요하게 다룬 “접촉점”의 문제도 여기에 서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한다. 선교사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적 질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세계를 듣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접촉점은 인간 안에 복음이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립 지대가 아니다. 선교사는 인간의 종교성을 복음 수용성의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인간의 종교성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드러내야 한다.

에밀 브루너가 말한 접촉점 논의는 선교와 변증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남아 있다고 보려 했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고, 개혁주의 전통 역시 인간 안에 자연적 접촉점이 남아 있다는 식의 이해를 경계한다. 인간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 회심과 거듭남은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된 가능성의 실현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의학』에서 강조하듯,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인간이 스스로 올라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신다. 선교는 바로 이 계시의 방향을 따라간다. 선교사는 인간의 종교

적 갈망에서 믿음을 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두 종교가 평등하게 만나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대화로 축소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선교사가 대화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의 삶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교사는 누구보다 깊이 들어야 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하며, 문화와 삶의 맥락을 진지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가 선포를 대체할 수 없고, 문화 이해가 복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선교의 목적은 인간 안에 이미 있는 가능성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일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오셨다. 인간은 진리를 불의로 억누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죄인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신다.

메이첸이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핵심도 이와 맞닿아 있다. 기독교는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종교적 조언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인간에게서 출발해 하나님께 도달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출발해 인간을 그 복음 앞에 세운다.

이 차이는 실제 선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선교는 결국 인간의 필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문화, 인간의 반응을 중심에 놓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는 선교는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필요를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해석한다. 인간의 상처는 중요하지만, 상처가 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의 문화는 중요하지만, 문화가 계시보다 앞선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단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위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부름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므로 참된 선교는 인간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복음을 재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유일한 소망을 드러낸다.

선교의 능력은 인간 안에 있는 설득 가능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선교의 능력은 복음 자체와 성령의 역사에서 나온다. 인간 안에 중립적인 출발점이 없다는 사실은 선교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선교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한다. 선교사는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선교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을

여신다. 선교사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증인이다. 선교는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일이다.

18장

회개 없는 복음 전도

“How can a man truly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his savior if he doesn't repent?”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참되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 Martyn Lloyd-Jones, “Lloyd-Jones on Repentance”



오늘날 선교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활발해 보인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선교 단체와 선교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선교 전략과 훈련 프로그램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 서구 중심으로 이뤄되던 선교는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교회들의 참여 속에서 더 다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활발함이 곧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날 적지 않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중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 죄와 회개에 대한 선포는 약해지고, 대신 위로와 도움, 공동체 참여와 삶의 개선이 강조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보다 기독교 문화에 참여하라는 초대가 앞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구조와 다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를 전혀 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회개를 말하더라도 너무 피상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다루기 전에 곧바로 믿음을 통한 용서로 넘어간다. 짧은 복음 전도 후에 바로 “영접기도”를 따라 하게 하고, 그 기도 안에서 이미 죄 용서를 받았음을 감사하게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인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정말로 원하는 지, 즉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는지는 충분히 살피지 못할 때가 많다.

물론 복음은 죄 사함의 소식이다. 선교사는 용서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문제는 용서를 전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죄의 진단 없이 용서를 선언하고, 회개의 열매를 살피지 않은 채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다. 죄의 깊이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는 쉽게 종교적 위로가 되고, 회개 없는 확신은 거짓 평안이 될 수 있다. 복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은혜의 선포이다.

성경에서 복음은 언제나 회개와 함께 선포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 복음 4:17)라고 선포하셨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사도행전 2:38)고 외쳤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으로 요약했다(사도행전 20:21).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선교의 비전도 처음부터 이와 같았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누가복음 24:47).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약속 안에는 죄 사함과 회개의 선포가 함께 들어 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

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사도행전 11:18)라고 고백했다.

그렇다고 회개의 행위 자체가 죄 사함의 근거라는 뜻은 아니다. 죄 사함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죄인이 그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회개와 분리되지 않는다. 회개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동반한다.

예수님은 죄인을 단지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누가복음 5:32). 그러므로 회개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복음 전도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것이다. 죄의 심각성과 참된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은혜는 값싼 위로로 변질된다. 하나님의 거룩과 준엄한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감동적인 사랑의 상징으로만 남는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필요를 말하지 않으면 믿음은 개인의 결단이나 자기 암시로 축소된다.

회개가 피상적으로 다루어질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거짓 확신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적 언어에 익숙해지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직면하지 못할 수 있다. 입술로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죄를 미워하지 않고, 거룩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도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의

신자들을 양육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 곧 내주하는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기보다, 죄책감이나 부담을 느낄까 봐 너무 빨리 얹은 위로로 넘어간다.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잖아요”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참된 회개와 죄 죽임(mortification)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덮는 말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적 위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죄와의 싸움이 끝난 사람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육체의 욕망과 남아 있는 죄와 싸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정직한 죄 인식이며, 절망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죄 죽임의 삶이다. 복음은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대충 덮어 주는 위로의 말이 아니다. 복음은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버리며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회개 없는 복음 전도는 결국 회개의 열매 없는 공동체를 만든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 필요를 채우는 모임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도움과 위로는 얻지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삶은 배우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 조차 말씀으로 교정하거나 권징하지 못하게 된다.

선교 현장에서도 이 위험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지역 교회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과 마음의 위로, 혹은 더 나은 관계와 삶

의 개선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다. 물론 선교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돕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며, 실제적인 필요를 섬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복음의 선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접촉점”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키면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세우지 않는 선교이다. 선교 사역의 중심에 죄와 회개, 십자가와 믿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히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심자가 아니라 종교적 참여자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의 위기는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복음 내용의 축소에서 시작된다. 회개 없는 복음 전도는 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고,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더 빠른 반응을 얻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죄인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지 않는 전도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회개를 거칠고 차갑게 외치라는 뜻은 아니다. 참된 회개 선포는 정죄의 기술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이다. 의사가 환자의 심각한 병을 정확히 진단해 주듯, 공허의 마음으로 인간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선교사는 죄를 말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 말해야 하며, 회개를 요청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 선교사는 바로 그 부르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참된 복음 전도는 죄인을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이끄는 전도이다.

19장

참된 영적 전쟁—마음의 전장에서 복음으로 싸우는 선교사



“James teaches the classic mode of warfare in its distilled essence: repentance, faith, and action.”

“야고보서는 영적 전쟁의 고전적 방식을 가장 정제된 형태로 가르친다. 곧 회개, 믿음 그리고 행함이다(cf. 약 4:7-10).”

— David Powlison, *Power Encounters: Reclaiming Spiritual Warfare*



선교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강력한 언어로 사용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사역이 강조되기도 한다. 선교사는 악한 영의 실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활동을 말한다. 에베소서 6장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미신적 두려움이나 능력 대결로 축소되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전쟁의 무기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이다. 다시 말해 성경적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신령한 선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위에 서고, 죄와 거짓을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싸움이다. 선교사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싸움을 가르쳐야 한다.

참된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싸운다. 선교사는 승리를 얻어 내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치러지는 “미지의 세계”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도덕적 삶”의 싸움이다.

이 점에서 영적 전쟁의 주된 전장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단지 외부의 악한 영과의 충돌로만 보지 않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싸움으로 설명한다. 그는 야고보서가 영적 전쟁의 고전적 방식을 “회개,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가르친다고 말한다. 실제로 야고보서 4장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면서도, 그 싸움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주 앞에서 낮아지는 삶과 분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본질적으로 도덕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야고보는 다툼과 싸움의 뿌리를 외부의 귀신에게만 돌리지 않는다. 그는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묻고, 그 원인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단지 악한 영을 향해 명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과 교만과 두 마음을 회개하는 싸움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행함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하는 삶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남

아 있는 죄와 싸우며 살아간다. 이 싸움은 일회적인 능력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욕망과 교만과 자기 의를 거절하는 반복적인 싸움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13절)

선교사에게도 이 싸움은 실제적이다. 성도들을 통제하려는 욕망, 사역의 성과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며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한 분노와 냉소,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무관심과 짜증.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제 현장일 수 있다. 영적 전쟁을 외부의 문제로만 규정할 때, 선교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잃게 된다.

태국과 같이 불교·브라만적 의례와 애니미즘적 두려움이 얹힌 선교지에서는 우상숭배와 미신적 두려움의 문제가 실제로 중요하다. 선교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현지인의 두려움을 비웃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그 두려움은 삶의 방식과 관계와 결정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복음은 그런 두려움에 분명히 대답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태국의 많은 신자들은 회심 이후에도 귀신과 영들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한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족이 아플 때 “혹시 조상이나 지역의 영을 화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흔들린다. 어떤 성도는 집안의 제사나 마을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재앙이 올 것이라는 압박을 받는다. 또 어떤 이들은 점술, 부적, 길일, 영적 의식에 깊이 묶여 살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뒤에도, 과거에 의지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단지 무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 가족과 공동체의 압박, 옛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얽혀 있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는 단순히 “귀신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동시에 선교사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더 자극하거나, 더 강한 종교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 세계의 비밀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이심을 가르치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서도록 양육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미신적 의식을 버리는 것이 회심의 전부는 아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적 두려움은 단지 외부의 종교 행위만의 문제

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하려는 마음의 문제와 연결된다. 개종 이후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욕심과 두려움, 옛 삶의 방식과 싸운다. 영적 전쟁은 우상을 버리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 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가족의 압박 앞에서 타협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정체성을 붙들도록 도와야 한다. 분노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시기심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으로 보게 해야 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죄와 거짓과 두려움에 맞서도록 도와야 한다. 영적 전쟁은 혼자 강한 사람이 되어 수행하는 개인적 영웅담이 아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하고, 죄를 고백하며, 넘어지는 형제를 다시 세운다. 선교사는 그 공동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서로를 세우도록 돕는 목자이다.

참된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장에서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선교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 승리 안에서 오늘도 죄와 거짓과 유혹에 맞선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자신과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인도한다.

20장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가?

“Nothing reveals the gravity of sin like the cross. ... The essential background to the cross, therefore, is a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gravity of sin and the majesty of God.”

“십자가만큼 죄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은 없다. ... 그러므로 십자가의 본질적 배경은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이다.”

— John Stott, The Cross of Christ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는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 예배당 위에 십자가가 있고, 찬양과 설교와 기도 속에서도 십자가라는 말은 자주 들린다. 그러나 십자가가 자주 언급된다고 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존 스토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강조하듯,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주변 장식으로 둘 수 없다. 십자가가 중심에서 밀려날 때, 기독교는 더 부드럽고 세련되어 보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모습으로 남지 않는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선교 현장에서 십자가는 때로 전도의 출발점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해야 할 어려운 교리처럼 밀려난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문화적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뒤로 밀려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가 뒤로 밀려난 선교는 아무리 활동적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의 중심을 잃게 된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략이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메시지다. 십자가는 우리가 전하는 여러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니라 메시지의 중심이다. 선교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

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바울은 그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를 당시 사람들이 더 받아들일 만한 종교적 지혜나 철학적 교훈으로 바꾸지 않았다. 십자가는 인간의 취향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단지 상처 입은 존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만 서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드러난다.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죄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죄가 가벼운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대속의 길을 여신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위로는 복음의 위로가 아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다. 십자가 없는 용서는 죄의 대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십자가 없는 선교는 결국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지 못한다. 선교사가 전해야 할 것은 단지 더 나은 삶이나

종교적 안정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 사함과 새 생명이다.

이 지점에서 선교사는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선교사는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하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며, 그들의 고통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 이해가 복음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선교사는 세상에 복음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복음은 사적인 위로나 개인적 취향이 아니다. 복음은 공적인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사람의 내면을 위로하는 종교적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모든 문화와 모든 권세 앞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 현장에는 십자가의 거리낌을 줄이려는 유혹이 있다. 죄와 심판의 언어는 불편하게 들리고, 대속과 피 흘림의 메시지는 낯설게 느껴지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선포는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과 우정, 치유와 회복, 공동체와 평화의 언어만으로 복음이 설명된다. 물론 복음은 사랑과 치유와 화평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열매이지, 죄와 심판과 대속적 형벌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

십자가를 증언하는 선교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을 꺾고, 자기 의를 무너뜨리며, 모든 사람이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을 낮춘다. 그러나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죄인은 은혜를 만난다.

십자가는 선교의 방법도 바꾼다. 십자가는 선교사에게도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 선교사는 십자가를 전하면서 동시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라면, 그의 사역 방식도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

선교사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십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그는 십자가가 드러내는 죄와 은혜를 세상 앞에서 증언한다. 십자가는 선교의 장식이 아니라 중심이며,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이다. 그러므로 참된 선교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갈 6:14),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전 1:23; 2:2).

21장

제한적 속죄를 믿는 선교사는 어떻게 전도하는가

“The sovereignty of God in grace gives us our only hope of success in evangelism.”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전도 성공에 대한 유일한 소망을 준다.”

— J. I. Packer,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개혁주의 선교를 말하면서 제한적 속죄 교리를 피할 수는 없다. 이 교리는 많은 사람에게 불편하게 들린다. 심지어 개혁신앙과 고백적 복음주의를 말하는 많은 선교사들조차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제한적 속죄는 전도를 약화시키는 교리가 아니라, 전도의 근거와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교리이기 때문이다.

제한적 속죄라는 표현은 쉽게 오해된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좁다거나, 복음 초청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교리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연히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는 확정적이고 효력 있는 속죄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는 “확정적 속죄” 혹은 “특정적 구속”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질문은 이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두셨는가. 많은 선교사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능성이 실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작은 결단이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다르게 고백한다. 그리스도께

서는 속죄의 의도와 효력에 있어서 오직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다. 그리스도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요한복음 10:11-15), 그분의 죽음은 실패할 수 없는 구속의 성취이다.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길을 열어 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선교사가 오해한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복음 초청은 진실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특정한 백성을 위한 실제적 속죄라고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다.

선교사는 누가 택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속한다. 선교사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자유로운 제시는 개혁주의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부르신다는 확신 때문에 선교사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당신이 먼저 믿으면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에게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라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부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다. 복음 메시지의 중심은 속죄의 범위에 대한 추상적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제한적 속죄를 믿는 선교사는 전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믿을 것 같으면 전하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멈추는 전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는 복음의 열매가 자신의 설득력이나 방법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안다. 회심은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 내는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성령으로 부르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이다. 이 확신은 선교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자는 종종 빠른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 더 많은 결신자와 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만들고, 사람의 결단을 재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한적 속죄를 믿는 선교사는 사람의 반응을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진실하게 권하되,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 교리는 선교사의 인내를 지켜 준다. 어떤 사람은 오래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은 수년 동안 눈에 보이는 열매가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때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

는다.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 백성은 반드시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올 것이다. 선교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전한다.

그러므로 제한적 속죄를 믿는 선교사는 이렇게 전도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는 죄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진실하게 초청한다. 동시에 그는 회심의 열매를 인간의 결단이나 선교 전략에 두지 않고,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

제한적 속죄는 선교의 문을 닫는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교만을 꺾고, 조급함을 다스리며,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교리이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전도한다. 그는 누가 택자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도 믿는다. 그러기에 선교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광의 복음을 선포한다.

22장

매력적인 예배라는 이름의 착각



“The focus still seems to be on us and our activity rather than on God and his work in Jesus Christ.”

“초점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보다, 우리와 우리의 활동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 Michael Horton, *Christless Christianity*



선교 현장에서 예배는 종종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된다. 과거에는 이런 흐름을 흔히 “구도자 예배”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방문자 친화적 예배, 열린 예배, 혹은 매력적인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들이 낮설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불편한 요소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고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선교사는 불신자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폐쇄적인 형식으로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처음 온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의 중심이 바뀔 때 생긴다. 불신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의 공적 응답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종교적 경험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구도자 예배라는 이름 아래 예배의 질문이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받으셔야 하는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로 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배려가 아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바꾸는 일이다.

예배는 본래 하나님을 향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 안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칭송한다.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의 고백이 된다. 성찬은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예배는 불신자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자리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과 은혜로 응답하시는 자리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불신자는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어쩌면 선교사는 예배와는 구별되는 불신자와 기독교 입문자를 위한 전도 집회나 성경공부 모임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관중으로 앉아 있는 발표회가 아니다. 만약 불신자가 예배시간에 들어온다면 그는 편안한 종교 경험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초대받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이 질서가 흐려진다. 전도라는 명분으로 예배는 점점 더 흥미 위주로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과 경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인간의 자존감과 가능성을 재발견시켜 주는 메시지가 되기 쉽다. 찬양도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감동하는 시간으로 변할 때가 많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참되고 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진리가 예배 안에서 잘못 사용될 때, 인간의 존귀함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지위가 아니라 마치 인간 자신 안에 독립적으로 있는 가치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자리로 미끄러진다.

이 점에서 인간 중심적 찬양과 설교는 단순한 교회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 주는 문제이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많고, 회개와 믿음의 복음이 깊이 선포되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보다 사람의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예배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얻을 수 있다. 죄의 책망 없이 위로를 받고, 십자가의 거리낌 없이 감동을 얻으며, 회심 없이 소속감을 경험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하는 공간이 된다.

물론 목회자와 선교사는 상한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 그러나 참된 위로와 회복은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서 오지 않는다.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서 온다. 인간의 참된 존귀는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데 있고, 죄로 무너진 인간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복음은 “너는 원래 충분히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다. 복음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말한다.

선교 현장에서는 이 유혹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어렵게 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는 점점 더 부담 없고 흥미 있는 분위기로 조정된다. 그러나 불신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배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도록 돕는 것이다.

예배는 불친절하거나 난해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처음 온 사람에게 예배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의 언어를 쉽게 풀어 줄 수 있으며,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환대와 중심의 이동은 다르다. 환대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태도이다. 반면 사람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 축소하는 일이다.

매력적인 예배라는 이름의 착각은 여기에 있다. 사람을 얻기 위해 예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면, 결국 사람도 얻지 못하고 예배도 잃는다. 교회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참된 예배는 사람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세상 앞에서 가장 참된 증언이 된다.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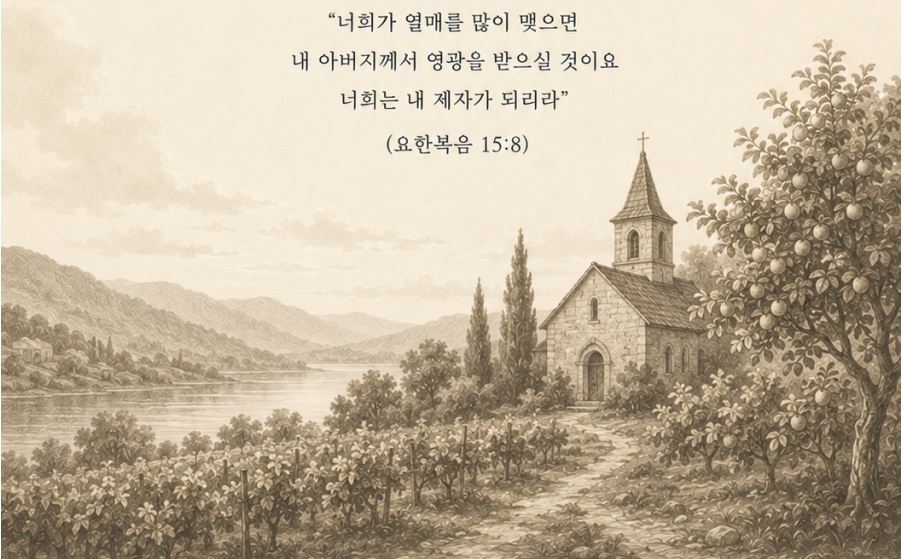


교회와 열매로 드러나는 선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8)



23장

교회의 사명과 다양한 섬김의 균형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by decl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he power of the Spirit and gathering these disciples into churches, that they might worship and obey Jesus Christ now and in eternity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교회로 모아 지금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 Kevin DeYoung and Greg Gilbert,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오늘날 선교라는 이름 아래 매우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진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료와 상담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사역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선교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교회는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모든 활동이 곧 선교인가. 사회 문화 활동과 제도 개선, 구제와 교육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선교라는 말이 너무 넓게 사용되면, 정작 교회가 무엇을 위해 세상에 보냄 받았는지는 흐려질 수 있다. Stephen Neill은 이 위험을 짚고 강하게 지적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 말은 사회적 섬김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선한 활동을 무분별하게 선교라고 부를 때, 복음 선포와 제자 삼음이라는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수많은 활동 속에 묻힐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선교가 복음 선포와 교회 세움에서 멀어질 때, 그것은 쉽게 선한 사회 활동이나 종교적 봉사로 축소된다.

선교는 교회 중심의 사역이다. 그러나 이 말은 선교가 교회 건물 중심이거나 특정 교단의 확장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다. 교회 중심의 선교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 안에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며, 다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뜻이다. 선교의 목표는 단지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교회로 모여며, 교회가 다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다.

주님은 교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명령은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선교가 단순한 개인 전도나 일회적 결신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선교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양육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차적이고 고유한 사명은 사회 개혁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말씀 안에서 제자로 세우는 일이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먹이시며 세우시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이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선교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억눌린 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는다. 교회는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섬김은 복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이다.

문제는 질서가 뒤집힐 때 생긴다. 지역 개발, 교육 사업, 문화 활동, 제도 개선이 선교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세움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은 복음보다 도움에 먼저 반응할 수 있고, 후원자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선교사도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고 싶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다. 마을이 깨끗해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더 깊다. 교회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부르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례와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제자는 단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선교는 결국 이런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향해야 한다.

이 점에서 목회적 선교와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교회의 고유한 중심 사명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신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며, 사업가는 정직하게 일하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긴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은 교회의 복음 선포와 제자 양육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교사는 다양한 사역을 존중하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구제는 중요하지만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교육은 필요하지만 제자 양육을 대체할 수 없다. 사회적 변화는 귀하지만 교회 세움과 동일하지 않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해야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세우는 데 있다.

선교의 다양한 사역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역이 같은 중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이다. 참된 선교는 교회를 우회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활동이 아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세우시며,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과 다양한 섬김의 균형이다.

24장

전도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해야 할 이웃



“Our calling as Christians is not to love God’s elect, and them only, but to love our neighbour, irrespective of whether he is elect or not.”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택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 J. I. Packer,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선교 현장에서 사람은 쉽게 “전도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누가 복음에 열려 있는지, 누가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누가 사역의 열매가 될 것 같은지 판단하게 된다. 물론 선교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별이 어느 순간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사역의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태도로 변할 수 있다.

2011년 한국에서 다문화 교회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는 전도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한글 교실, 의료 및 임금 체불 문제 도움, 야유회와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주 이런 질문이 생겼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는 이들까지 계속 돌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신앙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 사역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늘 후자가 더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역을 이어 가며 점점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다. 대위임령은 사랑의 계명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은혜는 회심 가능성을 전제로 주어진 조건부 호의가 아니었다.

이런 갈등은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도 똑같이 드러났다. 아이들 중에는 말씀에 더 잘 반응하고, 찬양도 잘하고, 교회 활동에도 더 적극적인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관심을 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산만하거나, 잘 듣지 않거나, 오래 와도 별 변화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은 쉽게 뒤로 밀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선교사는 가능한 한 편견을 버리고, 반응이 느린 아이와 소외된 아이까지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목적 지향적인 태도이다. 잘 믿을 것 같으면 더 잘해 주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일찍 마음에서 제쳐 놓는 태도이다. 이것은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사람을 사역의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때때로 선교사들은 더 똑똑하고 더 헌신적인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더디 믿는 제자들을 오래 참으셨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과 힘을 쏟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선교사에게는 지혜로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사람을 마음에서 제쳐 버리는 것은 다르다.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를 향한 태도는 냉소나 포기가 아니라 기도와 긍휼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사역의 열매가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이다.

사람이 복음에 무관심해 보일 때에도 선교사는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완고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날 때에도 이전의 실망을 계산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가능한 만큼 섬긴다. 이것은 전도의 기술이 아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웃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선교 현장에는 늘 성과의 압박이 있다. 후원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역의 열매를 설명해야 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한다. 반대로 완고해 보이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밭의 먼지를 털어 버려야 할” 상대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 말씀을 쉽게 사람을 포기하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효율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전 1:27). 우리가 보기에는 무디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마 19:30).

선교는 사람을 얻기 위한 최대한의 효율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효율의 잣대로만 보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자기희생은 낭비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계산을 무너뜨린다. 대위임령은 이웃 사랑의 계명과 분리되지 않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끝에서 주님이 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과 함께 간다(눅 10:37). 선교사는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먼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25장

교회의 영적 비만과 왜곡된 선교의 열매



“God is the gospel, not money, not health, not family.”

“하나님이 복음이다. 돈도, 건강도, 가족도 복음이 아니다.”

— John Piper, “God Is the Gospel”



한국 교회는 영적 자료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다. 설교는 넘쳐나고, 유튜브에는 신앙 강의와 간증 영상이 계속 올라오며, 책과 세미나와 집회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이 많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양식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만, 달고 자극적인 음식은 몸을 병들게 만든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 음식들이 많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회개보다 위로를 강조하며, 십자가보다 복을 더 크게 말하는 메시지들이 있다.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을 쉽게 끌어당긴다.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성공을 말하며, 고통받는 사람에게 빠른 해결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은 교회를 영적으로 비만하게 만든다. 많이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며, 복을 구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풍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과잉 섭취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체질이 선교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기복주의적 설교에 익숙한 교회는 선교지에서도 비슷한 열매를 기대하

기 쉽다. 성과 중심의 교회는 선교 보고에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한다. 몇 명이 모였는지, 몇 명이 결신했는지, 어떤 기도응답과 간증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보여 줄 만한 장면이 있는지를 묻는다. 보고는 함께 감사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기준이 되면, 선교사도 그 기대에 맞는 결과를 만들고 싶어진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 보았던 방식이 반복된다. 현지인들은 병이 낫고, 자녀가 잘되고, 경제적 문제가 풀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교회에 온다. 선교사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 주는 일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점점 복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로 인식된다. 설교도 죄와 회개, 그리스도의 주권보다 위로와 성공, 치유와 응답을 더 많이 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선교지 교회가 매주 식료품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아픈 사람들의 병원비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접착점이 된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배에도 참석하기 시작한다. 후원 교회에 보낼 사진도 생기고, 감사하다는 간증도 들려온다. 모두가 열매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교회에 머문다면 어떻게 되는가. 선교사는 그들을 잃을까 염려하여 더 많은 도움을 준비하게 되고, 설교도 그들의 기대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를 관리하는 기관처럼 되어 간다.

이런 사역은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인다. 모이는 사람이 있고, 나눌 이야기가 있으며, 후원자들이 기뻐할 만한 장면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뿌리 깊은 문제가 드러난다. 성도들은 계속적인 돌봄을 요구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교회와 사역자는 그들을 붙들고 유지하느라 바쁘지만, 정작 그 공동체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아가지 못한다.

물론 선교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돕고, 억눌린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일은 부차적인 일로 치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우는 일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도움은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할 것은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의 왜곡은 선교지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내는 교회의 영적 상태에서 시작된다.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와 성과 중심의 신앙에 길들여져 있다면, 선교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의 사역과 교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교사는 이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 당장의 보고보다 지역 교회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필요를 돌보되 그 필요를 넘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가 계속 돌봄만 받는 소비적 공동체로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증인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영적 비만을 넘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왜곡된 선교의 열매를 바로잡는 길이다.

26장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갈망하는 선교 — 브레이너드의 사역을 묵상하며



“God is glorified not only by His glory’s being seen, but
by its being rejoiced in.”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이 기쁨
을 받을 때에도 영광을 받으신다”

— Jonathan Edwards, “Miscellanies,” No. 44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선교의 출발점은 사람의 필요나 사역의 성공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그분의 위엄과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열망이 선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 갈망이 사라지면 사역은 계속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의 흔적은 남기고 하나님은 흐리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보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영광을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선교의 참된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뻐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데 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삶의 중심이 이동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감정의 고조나 일시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진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을 기대할 때 바른 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이 교리들은 본질적인 것들이다. 이것들 없이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과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것을 기대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나는 본다.” (Martyn Lloyd-Jones, “Defective Orthodoxy”)

오늘날 선교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질서다. 부흥은 진리를 우회하지 않는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갈망한다면,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진리의 선포이다. 죄와 은혜, 십자가와 부활, 속죄와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일이 선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18세기 북아메리카 원주민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다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경험한 부흥은 분위기나 이벤트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집요하게 선포했던 구원의 교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

브레이너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전, 원주민들에게 오랜 시간 죄와 인간의 상태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은혜의 교리에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David Brainerd, Diary, Aug. 24, 1745)

브레이너드는 이 무지가 제거되지 않는 한 어떤 감정적 반응도 참된 회심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죄의 뿌리와 자기 구원의 무능을 드러내는 진리를 피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

음을 얻기 위해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고, 먼저 인간의 비참함을 말했으며,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난받게 하신 사랑과 긍휼을 전했다.” (Aug. 6, 1745)

“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셨음을 설명하려 했다.” (Mar. 23, 1746)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 있고 멸망할 상태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Aug. 3, 1745)

“나는 이사야 53장 3-10절을 설교했다. 말씀에는 놀라운 영향력이 따랐고, 회중 가운데 큰 영적 관심이 일어났다.” (Aug. 7, 1745)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죄에 대한 깊은 통회였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새롭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 노인들도 영혼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Aug. 16, 1745)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이것을 단순히 성공적인 집회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부흥의 한복판에서도 진리를 가볍게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였다.

“나는 새로 위로를 받은 이들과 대화하며, 그 위로의 근거를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경계와 지침을 주려 했다.” (Aug. 9, 1745)

이것은 오늘날 선교사들이 깊이 새겨야 할 자세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인 양 분별없이 경험을 추켜세워서는 안 된다. 참된 부흥은 진리와 분리되지 않으며, 참된 위로는 죄를 충분히 직면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져야 한다.

브레이너드는 부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목도하며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이 사역의 어떤 부분도 피조물의 힘에 돌릴 여지가 없었다.” (Aug. 16, 1745)

“나는 이 날처럼 영혼을 회심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마른 뼈들에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Aug. 28, 1746)

이것이 참된 부흥의 특징이다. 사람이 계획하고 조작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 결과이다.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을 바라보았다.

“내 영혼의 관심은 단지 영혼들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는 데 있었다.” (Dec. 20, 1743)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갈망하는 선교는 언제나 진리 선포로 돌아간다. 죄를 충분히 가르치고, 속죄를 반복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일이다.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 죄를 축소하지 않고, 불편해할까 염려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생략하지 않으며, 짧은 이벤트와 즉각적인 반응을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단순히 즐겁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다. 죄와 싸우며,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다.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성공보다 충성을 선택하는 공동체다. 이러한 공동체는 눈에 띄는 외적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새로워지며, 지역 사회가 교회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

선교란 결국 이것을 바라는 일이다. 사람이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는 변화이다.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반응하기를 기대하는가.

맺음말

선교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에 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회심과 부흥, 십자가와 복음, 교회의 본질과 사역의 자리, 그리고 선교사의 삶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나오며,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선교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가.

선교는 단순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여야 한다. 사람이 중심에 서는 순간, 선교사역은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흐리게 만든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선교는 외적으로 작아 보일지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통해 선교를 이해하려 한다. 숫자와 반응, 분위기
와 확장을 보며 안심하거나 흔들린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질
문을 남긴다.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었
는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선교는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때로 선교는 불편하다. 죄를 말해야 하고,
회개를 요청해야 하며, 사람이 스스로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
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대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은 선교사의 질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의 질문일 것이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되기보다, 한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선교는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교는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글이 그 자리를 함께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발 행 | 2026년 7월 4일

저 자 | 최용진

펴낸이 | 최용진

펴낸곳 | 갓플리징북스

출판사등록 | 2011.11.30.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1번길 18-7

전 화 | 070-8065-4818

이메일 | thaigodpleasing@naver.com

ISBN | 979-11-91518-44-3

정가 | 10,000

© 최용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저자소개

최용진선교사는 충신대학원(예장합동, M.Div)을 졸업하고 부교역자 사역을 하다가 2010년 성남노회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전남 광주에 갓플리징(God-Pleasing) 다문화교회를 개척하여 10여 년간 섬겼습니다. 그후 갓플리징교회를 통해 2020년 태국으로 파송을 받아 현재는 GMS 선교사로 태국 우돈타니(북동부)지역에서 교회개척과 함께 문서선교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다.



이 책은 화려한 이론이나 성공 스토리를 위한 책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영적 전쟁과 흔들림 속에서,

어떤 진리를 붙들고 서야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묻고 답한 기록이다.

개혁주의의 신앙 위에 선교사의 정체성과 영적 무장,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사랑의 회복까지—

31일 동안 말씀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서도록 돕는다.

“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딤후 2:15)

”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

특히 선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이 책이 진리 위에 다시 서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한다.

값 10000 원

05230



9 791191 518443

ISBN 979-11-91518-44-3 (PDF)

GOD-PLEASING BOOKS